



## 국내 최대규모 환경기술 전문 전시회

#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7)』 성료

- 총 24개국 255개 업체가 참여하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약 2,000여 품목의 환경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 중국, 일본, 태국 등 12개국 91명의 바이어 초청을 통하여 신규 수출계약 기대

〈편집부〉



##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7)』성료

국내 최대 규모 환경비즈니스 및 마케팅의 장인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7)」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총 24개국 255업체(국내 : 159, 국외 : 96)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14일 막을 내렸다.

환경부 산하 법정법인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환경부 후원으로 국가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판로확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국제환경기술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국제환경기술전은 환경전시회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연속 국가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업체 및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의 후발 개도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와 기술 선진국인 호주, 일본 등 12개국 91명(‘06년도 10개국 84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였다. 이러한 바이어 초청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및 국가 환경기술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시기간 중 참가업체들의 상담액과 계약액을 살펴 보면 상담액이 3,588억원, 계약 추진액이 701억원

에 이르러 (84업체, 해외초청바이어 57명 설문조사 결과<‘07. 6. 28 현재>) 전시회가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 및 제품판매에 커다란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바이어와 지자체 공무원이 대부분 참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환경관련 분야 종사자 48,359명이 전시장을 참관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부 및 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은 환경신기술과 신제품(NEP)등을 포함해 2,000여점의 전시품이 소개되었다.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굴뚝원격감시시스템 및 최첨단 집진시스템,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한 독극물 감지시스템, 저공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LPG 오토바이, 공기청정 실내정원 및 분수대 등 새롭게 개발된 첨단 기술이 많이 선보였다.

또한 동 행사기간 중 국제환경기술세미나, 환경산업 정책 및 기술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최신 환경기술정보와 국가 환경정책방향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2007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VC)워크샵”은 12개 국가간 환경기술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참가업체의 수출증대에 호기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 리포트

이번 전시회의 참가국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 총 24개국 중 국내업체는 159개, 외국업체는 96개사가 참가를 하였다. 참고로 대륙별 참가를 보면 아시아는 일본, 북미는 미국, 유럽은 독일, 프랑스 등의 순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가별 참가업체수

참가국 총계	한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중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만	싱가폴	핀란드	영국	EU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네델란드	이스라엘
255	159	23	18	15	5	4	3	3	3	3	2	2	2	2	2	1	1	1	1	1	1	1	1	

〈표-2〉 분야별 출품현황

출품 분야 업체수	수질분야		대기분야		폐기물분야		소음 진동 분야	환경 복원	측정/ 분석기 분야	음식물 처리 분야	친환경 상품	환경 서적	친환경 상품	환경 관련 기관	기타
	처리 시스템	장비 및 부품	처리 시스템	장비 및 부품	처리 시스템	재활용									
255	27 (10.5%)	68 (26.7%)	11 (4.3%)	12 (4.7%)	7 (2.8%)	10 (4%)	2 (0.8%)	1 (0.4%)	59 (23.1%)	6 (2.4%)	10 (4%)	5 (1.9%)	6 (2.3%)	20 (7.8%)	11 (4.3%)

내년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8 : 2008. 6. 10~13, 코엑스 태평양홀)은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협회 임직원은 더욱 노력할 것을 다합니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제품홍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협회 주관으로 네델란드 아쿠아텍, 일본 오사카국제환경박람회, 중국 상해 환경전 등 주요 국제환경전에 한국관을 개설해 지속적

〈표-1 참조〉

또한 출품물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질분야가 37.2%로 가장 많고, 측정·분석기분야 23.1%, 대기분야 9%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으로 참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베트남 수처리 박람회('07. 10. 17~10. 20)에 참가하여 한국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환경무역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제환경기술전시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envex.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